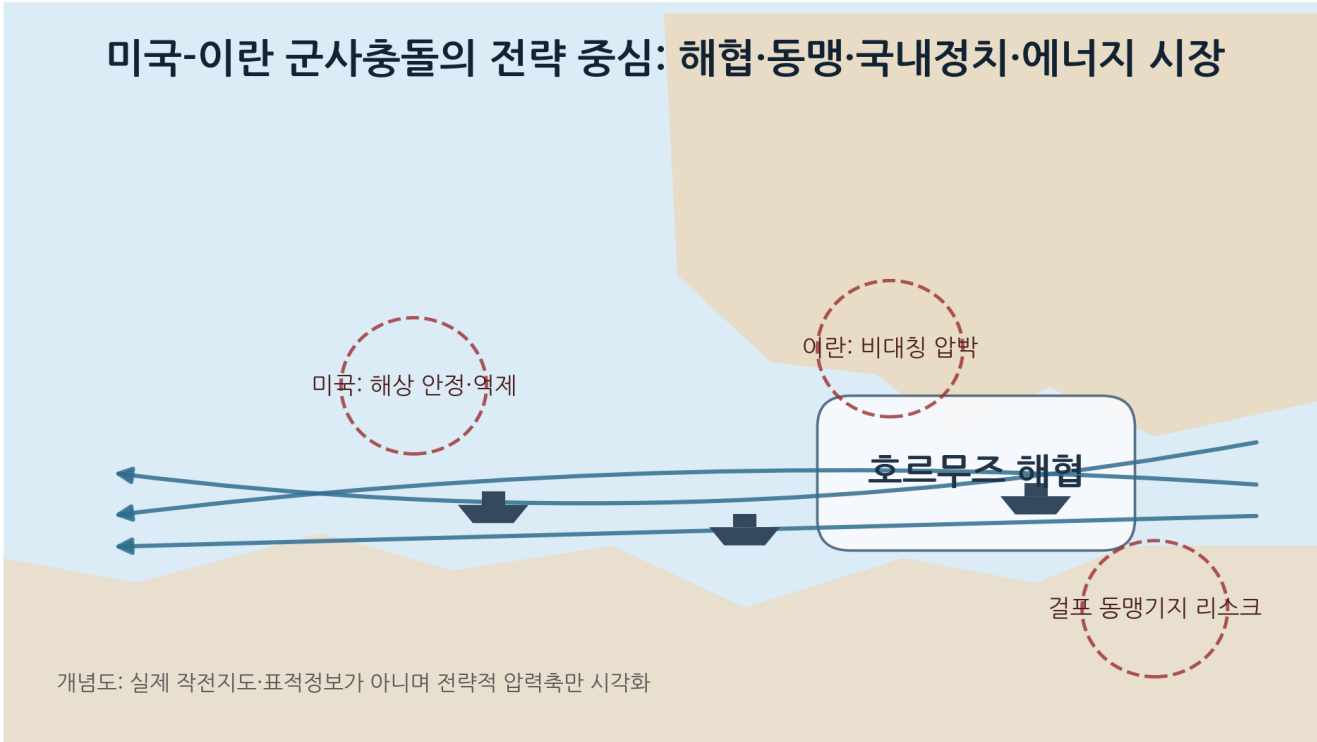


미국-이란 군사충돌 전략 비교분석

공개자료 기반 전략·정책 분석 | 기준일: 2026년 6월 6일

미국-이란 군사충돌의 전략 중심: 해협·동맹·국내정치·에너지 시장



작성자: 코리아베스트 (<https://koreabest.org>) | The American Newspaper
(<https://americannewspaper.org>)

본 문서는 작전 수행법, 구체적 공격 표적, 무기 운용 절차, 취약시설 공격 방법을 다루지 않는다. 공개자료에 근거한 전략·정책 수준의 분석이며, 삽입 이미지는 실제 작전지도나 표적정보가 아닌 개념도이다.

요약 판단

- 핵심 전쟁 논리: 미국은 압도적 항공·해군력과 제재를 결합해 이란의 핵·미사일·해상 강압 능력을 제한하려 한다. 이란은 전면 군사승리보다 “버티기”와 호르무즈 리스크를 협상 카드로 전환하는 전략을 취한다.
- 결정적 전장: 단순한 전투 피해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걸프 동맹기지, 국제 에너지 가격, 미국 내 여론과 의회 권한 논쟁이 결합된 복합 전장이다.
- 미국의 강점: 장거리 정밀타격, 해상 통제, 미사일 방어, 제재·금융망 통제, 동맹 네트워크. 약점: 긴 전쟁에 대한 국내 지지 부족, 인터셉터·함정·정비 부담, 유가와 물가 압박, 헌법상 전쟁권한 논란.
- 이란의 강점: 지리적 위치, 비대칭 전력, 혁명수비대의 분산형 지속전, 대리세력 네트워크, 체제 생존 동기. 약점: 경제 압박, 해·공군력 열세, 장기 봉쇄 비용, 내부 사회통제 비용, 외교적 고립.
- 가장 현실적인 30일 전망: 전면전 재개보다 제한적 충돌과 간접협상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해협의 완전 정상화보다 “부분 통항-검증-제재 일부 완화-추가 협상” 형태의 임시 안정화가 더 현실적이다.

출처 표기 방식

본문의 [R]은 Reuters/AP 등 공개 보도, [G]는 미국 정부·공식 발표, [T]는 싱크탱크·전문가 분석, [E]는 에너지시장 자료를 의미한다. 확인된 사실은 “확인”, 분석적 판단은 “추정/가설”로 분리했다.

구분	이 문서에서의 의미	주요 사용처
확인된 사실	공개 보도·정부 발표·공식 자료에 직접 근거한 내용	최근 충돌, 제재 발표, 의회 표결, 에너지시장 수치
추정/가설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해석. 당사국 내부 의사결정은 완전히 확인 불가	최종 목표, 협상 의도, 향후 30일 시나리오
제외 항목	구체 표적, 공격 절차, 무기 운용법, 취약시설 공격 방법	안전상 이유로 전략·정책 수준 분석만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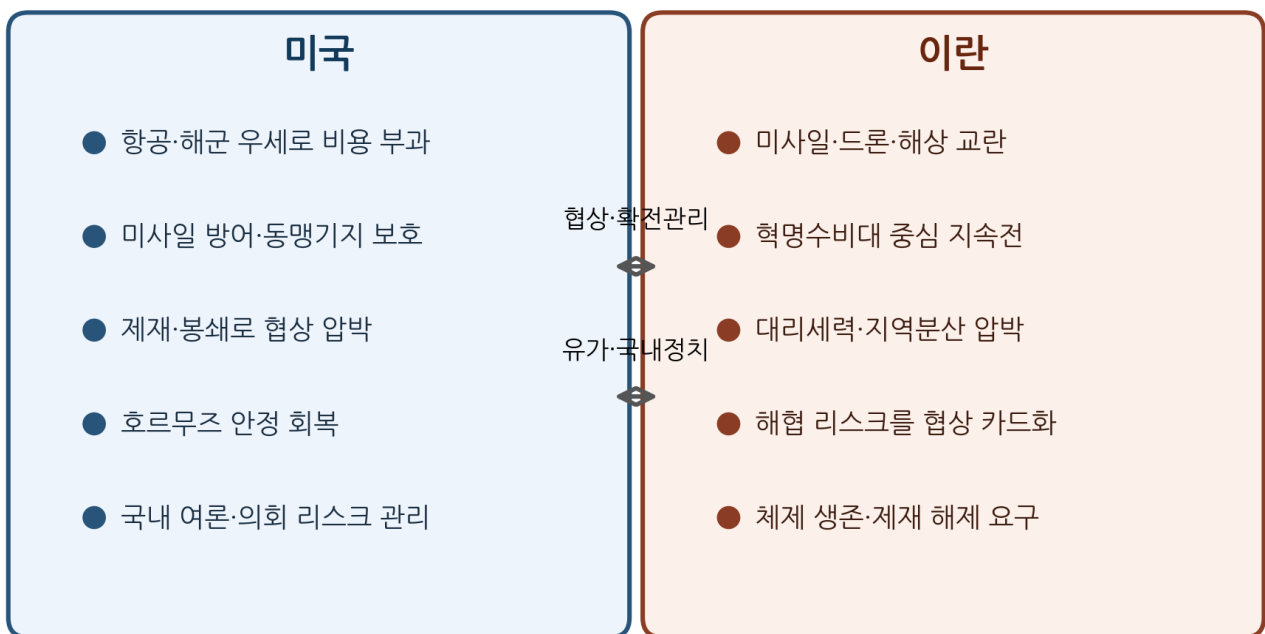
1. 공개자료로 확인되는 현재 상황

2026년 6월 6일 현재 공개 보도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선언된 총력전”보다는 불안정한 휴전과 반복적 제한 충돌 사이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Reuters는 6월 6일 미국이 이란 측 드론을 요격한 뒤 해안 감시·레이더 관련 시설을 공격했다고 보도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걸프 지역 미군 관련 거점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AP도 같은 흐름을 “불안정한 휴전을 시험하는 새로운 교전”으로 묘사했다. [R1][R2]

확인된 사실의 범위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충돌의 중심이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 동맹국으로 이동했다. 둘째, 양측 모두 전면전 확대를 공언하기보다는 제한적 공격, 요격, 제재, 협상을 병행한다. 셋째, 에너지 가격과 국내 정치가 군사전략 자체를 제약하고 있다.

측	확인된 사실	전략적 의미
군사 충돌	미국 측은 드론·미사일 위협을 요격하고 제한적 대응을 수행했다고 발표·보도. 이란은 보복적 공격을 주장. [R1][R2]	양측 모두 “상대가 먼저 위반했다”는 명분을 쌓으며 제한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해협·해상	CENTCOM은 4월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안전 통항 조건 조성 임무를 공개했다. [G1]	미국의 군사목표는 단순 응징이 아니라 국제 통항 질서 회복이다.
경제전	미 재무부는 “Economic Fury” 명의로 해협 통행 요구, 해상 강압, 디지털자산·그림자금융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했다. [G2][G3]	미국은 전쟁비용을 이란 체제 재정·외화·우회거래망에 집중시키려 한다.
에너지 시장	IEA는 호르무즈 통항 차질을 글로벌 석유시장 역사상 최대급 공급 충격으로 평가했고, Brookings는 장기화 시 임시 완충장치가 소진될수록 가격 급등 위험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E1][E2]	군사 충돌이 곧 유가·인플레이션·선거 압박으로 전환되는 구조다.
의회 권한	Reuters와 AP는 하원이 215 대 208로 전쟁권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실효성은 불확실하지만 대통령 권한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R3][R4]	미국의 확전 능력은 군사력보다 국내 승인·정당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전략 논리 비교: 미국의 강압적 억제 vs 이란의 비대칭 지속전



핵심 판단: 승패는 전장 파괴 규모보다 “누가 더 오래 비용을 견디는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1. 전쟁의 핵심은 “전장 승리”와 “정치적 비용 인내력”의 충돌이다.

2. 양측의 정치적·군사적 최종 목표

아래 목표는 당사국의 공식 발언과 공개 행동에서 추론한 전략적 목표다. 특히 “최종 목표”는 정부 내부 문건이 공개되지 않는 한 완전히 확인될 수 없으므로 일부는 추정으로 분류한다.

구분	미국: 목표	이란: 목표
정치적 최종 목표	확인+추정: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 차단, 해상 통항 질서 회복, 걸프 동맹 보호, 대통령의 강경 이미지 유지, 유가·물가 압박 완화, 의회 반발 관리.	추정: 체제 생존, 혁명수비대와 최고지도부 권위 유지, 제재 완화·동결자산 접근, 미국의 장기전 의지 약화, “주권 방어” 서사 강화.
군사적 최종 목표	추정: 이란의 장거리 타격·드론·미사일 생산·해상교란 능력을 협상 가능한 수준까지 약화. 호르무즈의 안정적 통항 보장.	추정: 완전한 군사승리보다 미국·동맹에 지속 비용을 부과할 최소한의 미사일·드론·해상교란 능력 보존.
협상상 목표	제한적 휴전, 검증 가능한 핵·미사일·해상 행동 제한, 동맹국 안전보장, 제재 완화는 조건부·단계적 제공.	동결자산·석유수입 접근, 항만·해상 봉쇄 완화, 체제 안전 보장, 호르무즈에서의 영향력 인정, 핵 문제의 장기 협상화.
국내정치 목표	“불필요한 지상전 없이 강하게 압박했다”는 메시지. 의회·유권자·연료가격 리스크 최소화.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메시지. 경제난과 사회통제를 체제 결속으로 전환.

핵심 차이는 전쟁의 시간감각이다. 미국은 빠른 비용 부과와 협상 복귀를 선호한다. 이란은 장기화가 내부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미국의 정치적 시간표가 더 짧다고 계산할 수 있다. CSIS는 이 충돌을 “화력의 대결”보다 정치적 인내와 협상 지렛대의 경쟁으로 설명한다. [T1]

3. 제한전·강압전략·억제전략

제한전의 목적은 상대 체제를 즉시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지를 좁히고 협상 조건을 바꾸는 것이다. 미국은 “거부에 의한 억제”와 “처벌에 의한 억제”를 동시에 사용한다. 해협 통항을 회복시키고, 이란의 공격 수단을 방어·약화시키며, 제재로 재정 능력을 압박한다. 반면 이란은 미국이 감당하기 싫어하는 비용, 즉 유가, 동맹기지 위험, 해상보험료, 국제 물류 불안, 국내 정치 반발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강압을 설계한다.

전략 차원	미국의 방식	이란의 방식	판정
제한전	장거리 타격·요격·해상호위·제재를 조합하되 대규모 지상전은 회피	상징적 보복, 드론·미사일, 해상교란, 대리세력 압박을 분산 운용	양측 모두 전면전의 비용을 알기 때문에 제한전 틀을 유지하려 한다.
강압전략	“해협 안정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압박 구조	“해협 불안정이 지속되면 세계가 비용을 낸다”는 압박 구조	미국은 금융·군사 우위, 이란은 지리·위험 프리미엄을 사용한다.
억제전략	동맹기지 방어, 미사일 방어, 보복 위협, 해상 작전 지속	미군·걸프 동맹·에너지시장에 비용을 예고해 미국의 추가 행동을 억제	상호 억제가 작동하지만 우발적 사상자 발생 시 급격히 붕괴 가능.
소모전	이란 전력·재정·우회거래망을 점진적으로 약화	시간을 끌어 미국 내 전쟁피로·유가압박·의회반발을 키움	이란이 군사적으로 약해도 정치적 시간 싸움에서는 버틸 수 있다.

4. 미국 측 전략 평가

미국의 전략은 네 개의 축으로 정리된다: 군사적 우세로 이란의 선택지를 줄이고, 해협 안정으로 세계경제 비용을 낮추며, 제재로 이란 체제 재정을 압박하고, 의회·여론·유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4.1 항공·해군력과 미사일 방어

미국은 항공·해군력에서 구조적 우위가 있다. Atlantic Council의 공개 추적은 미국이 중동에 대규모 구축함·함모·폭격기·미사일 방어 전력을 배치했고, 그 결과 인도태평양 대비태세와 탄약·정비 부담이 동시에 커졌다고 분석한다. [T4] 이것은 미국의 역설이다. 군사적으로 강할수록 더 많은 임무를 떠안고, 그 지속성이 정치·산업기반 문제로 전환된다.

4.2 제재와 금융전

미 재무부의 “Economic Fury”는 이란의 해상 강압, 석유·LPG 밀수, 디지털자산 거래소, 그림자금융을 겨냥한다. 재무부는 해협 통행 관련 지불이나 민감한 선박정보 제공도 제재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G2][G3][G4] 이는 미국이 군사전과 경제전을 분리하지 않고, 이란의 협상 여력을 재정적으로 축소하려 한다는 뜻이다.

4.3 동맹국 기지와 호르무즈 안정

걸프 동맹기지는 미국의 작전 지속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이란의 보복 압박 대상이 된다. AP는 이란이 바레인·쿠웨이트 방향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고, 미국이 해협과 걸프 동맹국을 향한 위협을 요격했다고 보도했다. [R2] 따라서 미국의 동맹기지는 “전력 투사 기반”이면서 “확전 위험 표면”이다.

4.4 국내 여론, 유가, 의회 권한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은 전투능력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지속성이다. Reuters는 하원이 215 대 208로 대통령의 이란전 지속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투표 자체는 상징성이 크지만 대통령 전쟁권한에 대한 드문 초당적 견제라고 보도했다. [R3] AP도 가스가격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의회의 반전 움직임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R4]

미국의 강점	미국의 약점
항공·해군·장거리 정밀전력의 우위. 미사일 방어와 동맹기지 네트워크. 달러·제재·금융망 통제. 해상교통 질서 수호라는 국제명분.	장기전 피로. 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내정치 비용. 의회 전쟁권한 논쟁. 미사일 방어 인터셉터·함정·정비 부담. 동맹기지 피격 시 확산 압력.

5. 이란 측 전략 평가

이란의 목표는 미국을 군사적으로 격파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승리했다”고 선언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란의 전통적 비대칭전은 정규 해·공군 열세를 지리, 미사일·드론, 소형 해상전력, 대리세력, 사회통제, 정보전으로 보완한다.

5.1 비대칭전과 혁명수비대

혁명수비대는 이란 전략의 핵심 정치군사 행위자다. 정규전에서 미국과 대칭 경쟁을 하기보다, 미국이 방어해야 할 지점을 늘리고 판단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압박한다. 이란은 전면적 해협 봉쇄가 국제 반발과 군사보복을 부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완전 봉쇄와 부분 교란 사이의 회색지대를 활용하려 한다.

5.2 미사일·드론 전력과 소모전

미사일·드론은 이란의 전략적 보험이다. 완전한 제공권 확보는 어렵지만, 저고도·분산형·반복적 위협을 통해 미국과 동맹의 방어비용을 높일 수 있다. CFR 행사에서 언급된 “공중 근접영역/air littoral” 논의처럼, 이란의 저고도 드론·미사일 운용은 미국의 전통적 공중우세 개념을 해협 주변에서는 복잡하게 만든다. [T3]

5.3 호르무즈 해협과 협상 지렛대

이란이 보유한 가장 큰 비대칭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이다. CSIS는 이란이 해협을 통해 세계 에너지 흐름에 비용을 부과하고 미국의 정치적 인내를 시험한다고 분석했다. [T1] Reuters는 이란이 석유수입 접근, 제재 유예, 항만 봉쇄 해제, 해협 영향력을 협상 요구로 제시한다고 보도했다. [R1]

5.4 국내 체제 생존과 정보전

이란은 전쟁을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주권 방어”로 프레임링한다. 동시에 인터넷 통제와 내부 정보관리도 중요하다. 2026년 공개 학술 연구들은 이란의 인터넷 섀도우와 중앙집중적 차단 메커니즘이 국내 통제와 정보전의 일부임을 보여준다. [T5]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란은 외부 압박을 내부 결속으로 바꾸려 하지만, 경제난과 사회통제 비용도 커진다.

이란의 강점	이란의 약점
호르무즈 지리, 미사일·드론·기뢰·소형 해상전력 등 비대칭 수단, 혁명수비대의 지속전 경험, 대리세력 네트워크, 체제 생존이라는 높은 인내 동기.	해·공군력 열세, 경제·외화·석유수입 압박, 장기 봉쇄의 역효과, 내부 불만과 정보통제 비용, 동맹국보다 대리세력 의존도가 커 통제 실패 위험.

6. 경제전·에너지 안보·정보전

에너지 안보 압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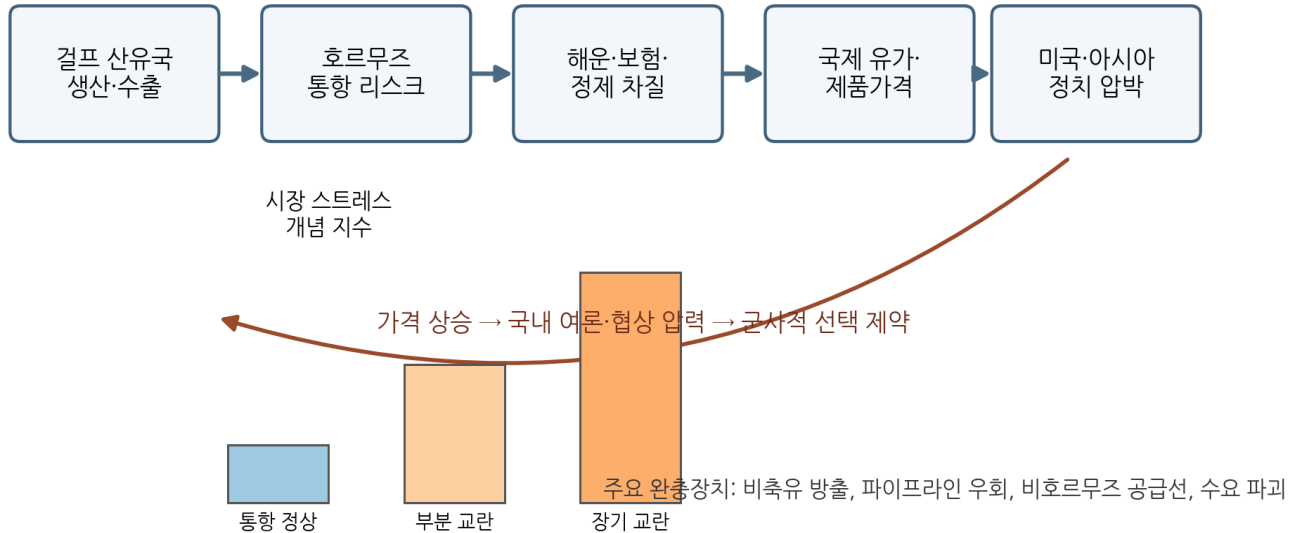


그림 2. 해협 교란은 해운·보험·경제·소비자물가·선거정치로 전이된다.

IEA는 3월 보고서에서 호르무즈를 통한 원유·석유제품 흐름이 전쟁 전 하루 약 2,000만 배럴 수준에서 사실상 급감했고, 제한적 우회능력과 저장시설 포화가 공급 손실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또한 회원국들이 4억 배럴 규모의 비상비축유를 시장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1] Brookings는 통항 장애가 장기화될수록 임시 완충장치가 빠르게 소진되고, 가격이 비선형적으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2]

이 구도에서 미국은 이란의 석유수입과 우회금융을 압박하면서도 유가 상승이라는 역풍을 맞는다. 이란은 해협 리스크로 협상력을 얻지만, 과도한 교란은 중국·인도·걸프국·유럽 등 잠재적 완충 세력까지 적으로 돌릴 수 있다. 경제전은 양측 모두에게 양날의 칼이다.

행위자	주요 리스크	전략적 대응
미국	가솔린 가격, 인플레이션, 선거 압박, 비축유 소진	부분 통항 회복, 제재의 표적화, 동맹국 비용분담 요구
이란	석유수입 차단, 외화 부족, 내부 경제 불만	동결자산·제재완화 요구, 해협 영향력의 협상카드화
걸프국	기지·공항·항만 위험, 보험료, 투자심리 악화	미국 방어망 의존과 이란 자극 회피 사이의 균형
중국·인도·일본·한국	수입가격 상승, LNG·LPG·비료·경제제품 공급 불안	우회 공급선, 비축유, 외교적 중재 압박
유럽	가스·경제제품 가격, 해운·보험비용, 경기 둔화	중동 안정화 외교와 대체 공급선 확보

7. 전략적 오판 가능성

확전은 반드시 의도적 결심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제한전은 상대의 신호를 오독할 때 가장 위험해진다. 미국은 제한적 보복이 이란의 체면을 과도하게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란은 체제 권위 유지를 위해 추가 보복을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이란은 미국의 국내정치 압박을 약점으로 보고 더 오래 버티려 할 수 있지만, 미군 사상자나 동맹국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미국 대통령은 더 강한 군사행동을 선택할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오판 유형	미국의 오판	이란의 오판	결과
상대 인내력	이란 경제난 때문에 곧 양보할 것이라고 과소평가	미국 국내정치 때문에 군사행동을 못할 것이라고 과대평가	협상 지연과 추가 충돌
피해 한계	제한적 공격은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	소규모 보복은 미국이 감수할 것이라고 판단	우발 사상자 발생 시 확산
동맹 계산	걸프국이 무조건 미국 편에 설 것이라고 가정	걸프국이 미국을 압박해 양보시킬 것이라고 가정	동맹 내부 균열 또는 과도한 의존
해협 카드	군사력으로 통항을 곧 정상화할 수 있다고 판단	해협 교란이 국제사회에 계속 용인될 것이라고 판단	세계 에너지 충격과 외교적 역풍
정보전	강경 메시지가 억제력을 높인다고 판단	저항 서사가 내부통제를 영구 보장한다고 판단	상호 악마화로 출구 약화

8. 확산 시나리오와 제한적 휴전 가능성

확전 사다리: 통제 가능한 압박에서 지역전 위험까지



정책적 목적: 3단계 이하에서 비용을 관리하며 협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양측의 합리적 출구.

그림 3. 현재 위험은 2~4단계 사이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개자료가 가리키는 기본 경로는 “간헐적 충돌 + 간접협상”이다. 그러나 다음 조건이 겹치면 확산 사다리는 빠르게 상승한다: 미군 또는 걸프 동맹국 대규모 사상자, 주요 유조선 사고, 이란 대리세력의 통제 불능 행동,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선의 재점화, 미국 의회와 대통령의 권한 충돌 심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정치 압박.

시나리오	개요	가능성	영향
관리된 강압전	제한적 요격·보복·제재가 반복되지만 협상 채널은 유지	높음	전쟁은 길어지지만 통제 가능. 시장 변동성 지속.
부분 휴전·해상 통행 합의	특정 해상 통행로, 일부 제재 유예, 동결자산 제한 접근, 추가 핵협상 분리	중간~높음	양측 모두 승리 서사를 만들 수 있는 현실적 출구.
해협 장기 교란	통행 회복 실패, 보험료·유가 급등, 비축유 완충장치 소진	중간	세계경제 충격. 미국·이란 모두 정치적 부담 급증.
기지 피해 후 보복 확대	미군 또는 동맹국 피해가 커져 미국이 더 큰 군사행동 선택	중간	전면전 위험. 의회 권한·동맹 참여 논쟁 격화.
대리세력 전선 확산	레바논·이라크·예멘 등에서 동시 압박	중간	미국 작전 범위 확대, 이스라엘·걸프국 연쇄 개입 위험.
협상 붕괴와 장기 소모전	양측이 서로의 양보 가능성을 오판해 출구 상실	낮음~중간	경제·군사·정치 비용이 모두 누적되는 최악 경로.

제한적 휴전의 조건

현실적 휴전은 “완전한 평화협정”보다 “서로가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임시 안정화 패키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해협 통행과 핵·미사일 제한의 검증 가능성을 원하고, 이란은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접근을 원한다. Reuters는 이란이 석유수입 접근, 원유수출 제재 유예, 항만 봉쇄 해제, 해협 영향력을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R1]

미국이 줄 수 있는 카드	이란이 줄 수 있는 카드	상호 검증 장치
제한적 제재 유예, 동결자산의 단계적·감시된 접근, 항만·해상 조치 일부 완화, 체제전복 목적 부인, 인도주의 거래 확대	해협 통행 보장, 미사일·드론 공격 중단, 대리 세력 긴장완화, 핵시설·물질에 대한 추가 검증, 억류자·시신·인도주의 문제 해결	제3국 중재, IAEA·해운보험·해양안전 관련 검증, 단계별 스냅백 해제, 제한 기간이 있는 임시 합의

9. 공개 보도·정부 발표·싱크탱크 견해의 차이

전쟁 분석에서 가장 위험한 오류는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를 같은 무게로 취급하는 것이다. 보도는 사건을 빠르게 포착하지만 초기 오류 가능성이 있고, 정부 발표는 공식 입장이지만 정치적 프레이밍을 포함한다. 싱크탱크 분석은 구조를 이해하는데 유용하지만 가정과 가치판단이 들어간다.

자료 유형	대표 근거	강점	한계	이 문서의 사용법
공개 보도	Reuters, AP	사건 발생·시간·당사자 주장 확인에 강함	전시 초기 정보는 불완전할 수 있음	최근 충돌, 협상 요구, 의회 표결 확인
정부 발표	CENTCOM, U.S. Treasury/OFAC	공식 정책·제재·작전 명분 확인에 강함	자국 입장의 정당화가 포함될 수 있음	미국의 목표와 도구 확인
싱크탱크·전문가	CSIS, CFR, Atlantic Council, Brookings	전략 구조·비용·시나리오 분석에 강함	필자별 관점과 가정 차이	최종 목표·인내력·시장 충격 해석
에너지 자료	IEA, Brookings, 시장 보도	수급·비축·가격 메커니즘 분석에 강함	전쟁 지속기간 가정에 민감	호르무즈 교란의 세계경제 영향 분석

10. 중동 지역국가와 국제 에너지 시장 영향

중동 지역국가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단순히 어느 편을 선택하는 행위자가 아니다. 그들은 미군 방어망에 의존하면서도 자국 영토가 전쟁 표면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걸프국은 통항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이란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는 확전도 원치 않는다. 이 양면성이 미국의 군사전략을 제한한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는 물량 부족보다 “기간 불확실성”이 가격을 흔든다. Brookings는 임시 완충장치가 시간이 지나며 소진되고, 시장이 해협 교란의 장기화를 가격에 반영하면 급등이 비선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한다. [E2] 따라서 향후 30일의 핵심 변수는 전투 횟수보다 해상 통항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회복되는가다.

지역·시장	주요 영향	전략적 함의
걸프국	기지·항만·공항·에너지 인프라 위협, 투자심리 위축	미국 방어 의존은 커지지만 확전 억제 요구도 커짐
이스라엘·레바논 전선	헤즈볼라와의 연계가 협상 분리 원칙을 흔들 수 있음	이란은 대리세력 전선을 협상 카드로 사용 가능
이라크·시리아·예멘	대리세력과 미군 주둔지의 접촉면 확대	우발충돌이 중앙정부 통제를 넘어설 위험
중국·인도	원유·LNG·LPG·비료 공급선 압박	미국·이란 모두에게 외교적 중재와 에너지 대안 압박
국제 금융·보험	해상보험료, 운임, 선박 우회, 신용위험 상승	군사적 안정화보다 “상업적 예측가능성” 회복이 중요

11. 결론: 승리 조건과 30일 전망

미국과 이란의 “승리”는 서로 다르게 정의된다. 미국의 승리는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협 안정과 핵·미사일 제한을 얻고 국내정치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이란의 승리는 미국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보존하고 최소한의 군사·해상 교란 능력을 유지한 채 제재 완화나 자산 접근을 얻는 것이다.

항목	조건	실패 신호	현재 판정
미국이 이길 수 있는 조건	해협 통항이 예측 가능하게 회복된다. 이란의 미사일·드론·해상교란 능력이 협상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된다. 동맹기지 방어와 국내 유가 압력이 관리된다. 의회와의 권한 충돌이 통제된다.	미군 또는 동맹국 대규모 피해, 유가 급등, 의회·여론 이탈, 장기 지상전 압력, 이란의 핵·대리세력 카드 부활	조건부 가능. 군사력은 충분하나 정치·에너지 시간표가 취약하다.
이란이 버틸 수 있는 조건	혁명수비대와 체제 핵심이 유지된다. 제한적 공격능력을 보존한다. 호르무즈 리스크를 협상 카드로 유지하되 국제적 역풍을 관리한다. 동결자산·제재완화 일부를 얻는다.	경제 붕괴, 내부 불만 폭발, 해·공중 압박으로 해협 카드 상실, 중국·인도 등 수입국의 이란 압박 가세	버티기는 가능하나 장기 경제전이 치명적이다.
양측 모두 패배하는 시나리오	해협 장기 교란, 유가·식량·물류 충격, 대리세력 확산, 미군·민간인 사상자, 의회·행정부 충돌, 이란 내부 불안정 심화가 동시에 발생.	휴전 채널 붕괴, 동맹국 독자행동, 시장의 장기폐쇄 가격반영, 상호 보복의 자동화	위험은 중간. 한 번의 큰 사상자 사건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향후 30일 전망	부분적 해상 안정화 시도, 간접협상 지속, 제한적 교전 반복, 제재와 자산 접근 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 레바논·걸프 전선과의 연계 압력.	협상 중재 실패, 해협 통행 재교란, 동맹국 공항·기지 피해, 유가 급등	전면전보다 “불안정한 제한전+협상”이 기본 경로다.

최종 판단

현재의 미국-이란 충돌은 전통적 의미의 전장 점령전이 아니라, 해협·에너지·제재·동맹·의회·정보전이 결합된 강압전이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우세하지만 정치적 시간표가 짧고, 이란은 군사적으로 열세지만 전략적 지리와 인내전 카드가 있다. 따라서 승패는 “누가 더 많은 시설을 파괴했는가”보다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출구를 먼저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참고자료 및 근거 목록

[R1]	Reuters, "US strikes Iranian sites after Iran launches drones in latest Gulf flare-up," June 6, 2026. 주요 근거: 최신 제한 충돌, 협상 요구, 호르무즈 교란, 유가·국내정치 압력.
[R2]	Associated Press, "A new exchange of fire with Iran in the Gulf tests the fragile ceasefire," June 6, 2026. 주요 근거: 미사일·드론 요격, 걸프 동맹국, 불안정한 휴전.
[R3]	Reuters, "US House votes for measure that would end Iran war, in blow to Trump," June 3/4, 2026. 주요 근거: 하원 215-208 표결, 전쟁권한 논쟁, 상징적이지만 정치적 압박.
[R4]	Associated Press, "House approves war powers resolution to halt military action against Iran in a rebuke of Trump," June 2026. 주요 근거: 의회 권한, 여론·가스가격·인플레이션 압박.
[G1]	U.S. Central Command, "U.S. Forces Start Mine Clearance Mission in Strait of Hormuz," April 11, 2026. 주요 근거: 해협 안전통항·기뢰 제거 임무의 공식 설명.
[G2]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Economic Fury Targets Iranian Maritime Extortion," May 27, 2026. 주요 근거: 해협 통행 요구·해상 강압에 대한 제재 논리.
[G3]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Economic Fury Targets Iran's Largest Digital Asset Exchange for Terror Finance and Sanctions Evasion," June 2, 2026. 주요 근거: 디지털자산·그림자금융 제재.
[G4]	OFAC FAQ 1257, June 2, 2026. 주요 근거: 이란 기반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거래하는 비미국인·외국 금융기관의 제재 위험.
[E1]	International Energy Agency, Oil Market Report - March 2026. 주요 근거: 호르무즈 통항 급감, 공급충격, 비축유 방출, 가격 변동.
[E2]	Brookings, Robin Brooks and Ben Harris, "The timing of the impending crude crisis," May 22, 2026. 주요 근거: 장기 해협 교란 시 임시 완충장치 소진과 비선형 가격 상승 위험.
[T1]	CSIS, Daniel Byman, "Iran's Strait of Hormuz Gambit and the Limits of U.S. Military Power," April 20, 2026. 주요 근거: 정치적 인내, 해협 지렛대, 협상 압박 구조.
[T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ran War: Analysis and Updates," 2026. 주요 근거: 전쟁이 중동과 세계질서에 미치는 군사·지역·글로벌 영향 추적.
[T3]	CFR Event, "Military Analysis of the War With Iran," April 29, 2026. 주요 근거: 저고도·공중 근접영역에서 이란 드론·미사일 전술의 전략적 효과 논의.
[T4]	Atlantic Council, "Tracking US military assets in the Iran war," updated May 15, 2026; and "How will the Iran war change the US role in the world?" June 2, 2026. 주요 근거: 미군 전력 배치, 준비태세, 인터셉터·방위산업 부담, 인도태평양 전환 논쟁.
[T5]	Ali Sadeghi Jahromi and Jason Jaskolka, "A Multi-Perspective Study of the Internet Shutdown in Iran," arXiv, April 30, 2026; Giuseppe Aceto et al., "Iran's January 2026 Internet Shutdown," arXiv, March 30, 2026. 주요 근거: 이란 인터넷 차단과 정보통제 맥락.

작성자: 코리아베스트 (<https://koreabest.org>) | The American Newspaper (<https://americannewspaper.org>)

생성 이미지: 본 문서용 개념도 4종. 외부 사진이나 상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체 표적 또는 공격 절차를 나타내지 않는다.